

“작은 사랑이 모여 큰 희망이 이루어집니다”

—어린이마술파티 애심기부행사 연길서



사랑의 성금 전달 장면

“우와 ~ 진짜 비둘기다!”
“하나, 둘, 셋!” 카운트다운과 함께 마술사가 흰 ~ 바람을 불어넣고 책을 펼치자 새하얀 비둘기가 푸드득 날아 올랐다. 마술사의 손끝에 내려앉는다.
“아아! 진짜네!”, “와, 신기하다!”, “마법사야!”

이곳저곳에서 아이들의 환호소리가 터지면서 폭발적인 인기로 붐비고 있는 현장, 바로 연길 카이로호텔에서 펼쳐진 어린이마술파티 행사장이다.

4월 13일, 이른아침부터 가을비가 구슬구슬 내리는 을씨년스러운 날씨지만 장내는 명절 분위기로 들끓었다. 삼삼오오 부모님과 함께 행사장을 찾은 아이들 외에도 특별한 꼬마손님들이 있었는데 바로 연변한마음천사애심협회 후원하고 있는 아홉명의 불우이웃 아이들이었다.

이날 행사는 연변한마음천사애심협회에서 올해 처음으로 조직한 애심행사로서 이날 아이들은 문화공연 기획 전문인 한국 더웨이솔루션팀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어린이마술파티에 초청되어 무료로 마술쇼를 관람하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료해 따르면 연변한마음천사애심협회는 2016년 연변 특대폭우 당시 장가계에서 일하다 고향에 돌아온 관광가이드들이 재해복구 지원을 하면서 조직된 애심공익 사회단체이다. 9년간의 발전을 거쳐 회원수는 8명으로부터 600여명으로 성장했고 후원 학생은 1명에서 25명으로 늘었다. 협회는 학습에 근면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학 졸업 때까지 정기적으로 후원하기로 하고 신심과 용

기를 갖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이끌어주면서 사회에 큰 울림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연변한마음천사애심협회장 서기 정호국은 “마술쇼 관람을 마친 아이들의 얼굴에 밝게 피어난 웃음을 보니 보람차다. ‘신기하다’, ‘넌 재밌었다’는 아이들의 반응에 너무 기쁘다.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오늘처럼 하루하루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마술쇼에 앞서 한국 더웨이솔루션팀 중국측 담당자이며 연길등달문화미디어유한회사 법인인 허연화는 이번 마술쇼 티켓 수익금의 중국측 전체 수익부분인 2,300원을 협회에 전달하면서 아이들을 위한 후원사업에 사용

해달라고 부탁했다.

허연화는 이번 행사에 참가한 전체 어린이와 부모님들께 환영을 표하고 나서 “마술은 아이들의 집중력, 창의력, 대화 능력을 키워주는 활동이다.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과 호기심을 마술로 채워주고 싶었고 가족이 함께인 뜻깊고 즐거운 공간을 마련하고 싶었다.”고 하면서 “호기심으로 반짝이는 아이들의 눈빛을 보니 모든 노력이 보상받는 기분이다.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우는 마술이 사랑의 씨앗이 되길 바랐고 우리들의 저그마한 애심을 담은 모금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힘과 보탬이 되어주길 바랐다. 앞으로도 애심협회의 다양한 애심행사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싶다.”



연변한마음천사애심협회 관계자가 아이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고 피로했다.

이번 어린이마술파티에 출연한 한 마술사는 “처음엔 이 행사가 재능기부행사와 후원행사임을 몰랐다. 공연 시작전 기부행사 소식을 듣고 제 재능으로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따뜻해졌다.”고 전하면서 “공연중 마음을 가장 뜨겁게 달군 건 아이들의 반응이었다. 마술에 몰입하며 환호하는 아이들, 처음엔 소극적이었다가 점점 반짝이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엔 단순히 오락을 제공한다는 생각으로 마술을 했지만 오늘은 다르게 느껴졌다. 내가 펼치는 작은 마술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커다란 기쁨과 용기가 된다는 사실, 이보다 더 값진 보상은 없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아이들에게 마술의 기적을 선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마술쇼 관람에 이어 이경왕갈비탕에서 펼쳐진 생일파티에는 부모가 곁에 없이 할머니 손에서 자라고 있는 후원학생 리령(가명)을 주인공으로 모셨다. 마술쇼 참가 일동의 축복 속에서 단설기 초콜을 붙면서 리령은 “오늘은 가장 행복한 하루예요. 삼촌, 이모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공부하여 그들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요.”라고 활짝 웃으며 말한다. 이어서 연변한마음천사애심협회 관계자들이 아이들에게 사랑의 마음이 담긴 후원금을 전달했다.

정호국은 “오늘 행사장을 가득 메운 박수와 환호 소리는 단순한 감동을 넘어 작은 손이 모여 만든 거대한 용기의 합성이다. 모든 후원이 아이들의 눈빛을 바꾸는 기적이 된다.”고 강조하면서 “협회 아이들을 위한 사회각계의 후원이 십시일반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협회에서 리령(가명)을 위해 생일파티를 준비할 예정이었는데 이경왕갈비탕에서 협회를 대신하여 생일파티를 마련해주었다.”면서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사랑의 마음을 전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다. 오늘의 마술쇼를 올해 첫 행사로 하여 나물개기, 6.1절, 여덟방학을 계기로 캠프, 영화 관람 등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피로했다.

이날 행사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아이들에게 희망과 꿈의 날개를 달아 주었다. 아이들의 꿈을 격려하기 위한 사회각계의 사랑 릴레이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 리전기자



[단상]

비상약보다 더 좋은 것은 ‘상비약’이다

얼마전 나와 같이 로인협회에 다니면서 춤과 노래를 배우고 게이트볼도 치는 친구가 “다른 사람들은 오래 살자고 뇌출혈 비상약이며 심장병 비상약에 각종 보조제를 가지고 다니는데 나는 단 한번도 비상약을 입에 대지 않고도 몸이 이렇게 튼튼해요.”라고 말했다.

팔순고개를 넘은 로인의 당당한 말에 나는 깊은 공감을 느꼈다. 진정한 건강의 열쇠는 위기 때의 비상약이 아닌 평생 함께하는 ‘상비약’임을 새삼 깨달았다.

단 한번뿐인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지켜가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이다. 가뭄이 심할수록 힘껏 땅속의 내수를 끌어올리고 혹한이 심할수록 서로 가지를 껴안으며 푸르름을 잃지 않는 소나무처럼 우리 인간도 마음속에 끊임없이 영양분을 공급해야 한다. 가족의 상실로 슬픔에 잠길 때, 역경에 부딪쳐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지칠 때마다 정신상의 삶의 끈을 단단히 부여잡고 ‘마음의 옷’을 차려 입고 건강을 챙겨야 한다. 공원 산책으로 밀려오는 슬픔과 우울함을 날려보내고 이웃과의 소통으로 마음의 가시를 뽑아내며 긍정적인 언어로 생각을 다듬는 과정이 바로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는 최고의 상비약이고 삶의 기둥을 튼튼히 하는 고임돌이다.

특대홍수가 터진 다음 무너진 제방을 손질하느니 평소 튼튼한 제방을 쌓고 나무와 풀을 심어 미리 홍수의 피해를 대비하는 것처럼 건강도 사후 치료보다는 평소 신체

단련을 통한 사전 예방이 핵심이며 이는 건강장수의 으뜸가는 ‘상비약’이다. 40년간 위병과 싸우며 일생 동안 네차례 수술을 겪은 나는 옷을 벗으면 온몸에 수술자리가 력연하다. 처음에는 좋다는 병원은 다 다니고 위병에 좋다는 비상약도 많이 썼지만 병의 뿌리를 뽑아내지 못했다. 후에 질병 전승에 맥을 버리지 않고 매일 아침저녁으로 한시간씩 걷기운동을 견지하고 낮에는 게이트볼 치러 다녔다. 하여 지금은 걷기운동으로 관절이 튼튼해지고 게이트볼 운동으로 사유가 민첩해지고 소화기능이 개선되었을뿐더러 수면까지 좋아져 건강하게 팔순고개에 들어섰다. 생명은 운동에 있고 심장을 뛰게 하는 체육만큼 강력한 장수비결은 없다.

하루하루 아침이 밝아오는 것은 새로운 기회와 기쁨을 나누라는 뜻이고 하루하루 저녁이 어두워지는 것은 실패와 아쉬움을 묻으라는 뜻이다. 고요한 늪의 물보다는 출렁출렁 조약돌과 씨름하면서 떠나면 바다로 향하는 시내물처럼 로연에도 비상약과 보조제에 의존하기보다는 매일의 작은 실천이 더 중요하다. 마음을 굳게 먹고 몸을 꾸준히 단련하는 ‘삶의 상비약’으로 인생의 마지막까지 당당히 걸어가기를 모든 이들에게 권장하고 싶다.

상비약은 화학 조합이 아닌 삶의 철학이다. 오늘 내딛는 한걸음이 래일의 건강을 만들고 지금의 웃음이 미래의 활력이 된다. 인생의 홍수를 이겨내는 진정한 비결은 약병이 아닌 우리의 몸과 마음이다. / 리상민

조선의용군 오가황회의 유적지 교양기지 착공식 거행

4월 7일, 심양시 우흥구 홍흥로 소학교 (원 오가황조선족중심소학교) 교정내 조선의용군 오가황회의 유적지 교양기지 착공식이 거행됐다.

착공식에는 성, 시, 구 관련 단위 관계자와 사회각계 인사, 항일전쟁 승리 80주년을 기념하는 핵심 대상으로 력사건축자원을 활용하여 자료 전시, 정신전승, 교육실천을 일체화한, 청년세대들에게 항일정신을 전달하는 ‘살아있는 교실’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이 교양기지는 조선의용군이 1945년 군사회의를 열었던 오가황소학교 교정에 위치해있다. 항일전쟁 승리 후 중국공산당의 령도 아래 조선의용군은 명령에 따라 동북으로 진격하면서 심양 우흥구 오가황에서 천인결의대회를 소집하고 중국 군민들과 함께 일본군에 맞서 싸웠다.

총투자가 200만원인 이 대상은

오가황소학교 교정내 유휴 유치원을 개조하여 부지면적이 1,300평방미터, 전시면적이 847평방미터인 테마관을 건설하게 된다. 대상은 중국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쇼전쟁 승리 80주년을 기념하는 핵심 대상으로 력사건축자원을 활용하여 자료 전시, 정신전승, 교육실천을 일체화한, 청년세대들에게 항일정신을 전달하는 ‘살아있는 교실’ 역할을 할 전망이다.

우흥구당위 관계자는 “홍색유전자 데이터베이스로서 력사 계승과 애국 교양의 요람이 될 것”이라며 “올해 안에 완공해 개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조 우의를 상징시키는 동시에 국제주의정신을 고양하는 문화적 교두보로 평가받고 있다. / 료녕신문

안도현

차에 치인 국가 2급 보호동물 고라니 구조



최근 안도현자연자원및탐업국에서는 한 시민으로부터 “안도현 명월진 북만촌 린근에서 ‘노루’가 차에 치여 구조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구조 요청 전화를 받았다.

신고를 접수한 사업일군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확인해본 결과 이는 노루가 아닌 국가 2급 보호동물 고라니 (獐子)로 판정되었다. 입과 복부에 중상을 입은 고라니는 피를 흘리며 고통스레 몸부림치고 있었다. 알아본 데 의하면 현장 응급처치후 의료시설이 제한된 점을 고려해 연변야생동물구조중심으로 이송해 치료한 뒤 야생화, 방사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한다.

근래 안도현자연자원및탐업국은 지속적으로 야생동물 보호 강도를 높여 ‘야생동물 보호 특별전문행동’, ‘청풍행동’ 등을 통해 사육시설, 농수산시장, 특산물 가게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2021년 이후 담비 (貉子), 황조롱이 (红隼), 샴 (豹猫) 등 12마리의 보호동물을 구조하고 사후 대응에서 선제적 예방으로의 전형 승격을 추진해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생태시범원 건설에 전력을 다해 왔다. / 리전기자

/ 사진 안도현당위선전부



장백 변경 경찰 청년자원봉사자들에게 안전보호 강습 진행

4월 11일, 제 10회 전민국가안전교육일을 맞아 ‘조국을 보위하고 변경을 지키기’ 위한 서부지역 청년자원

봉사자들의 안전보호 의식과 응급구조 능력을 한층 더 제고하고자 장백변경관리대대는 공청당장백조선족자치

현위원회와 함께 장백체육장에서 ‘침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자야방비 능력 제고 강습을 진행했다.



국가 안전 리념과 해당 부문의 요구에 따라 장백변경관리대대 경찰들이 변경 일선에서의 집법근무의 선진 경험에 근거하여 변경 일선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과 자야보호, 자야구조 중요성에 대한 리론강습을 진행했다. 이어 위험에 처했을 경우 어떻게 하면 평온한 호흡을 유지하고 대방의 공격에 효과적인 대책을 세워 자기를 보호할 것인가와 ‘자야보호’ 기술기능과 기본요령, 기교, 주먹치기, 돌발성 사태에 대한 패수반응 등에 대해 집중 강의와 실천훈련을 진행했다.

장백변경관리대대는 계속하여 변경 질서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변경 안정을 수호할 데 관한 상급 부문의 요구에 따라 계획적으로 서부지역 청년자원봉사자들에게 법률지식, 변경정책 등 리론수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자야안전보호 기술기능훈련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 최창남, 리준량 (李俊良), 등호 (邓豪), 리가에 (李佳锐)

